태초의 설계도

(창1:1~2)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태초의 설계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태초의 설계도'

6.25전쟁 이후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우방인 관계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거의 빠짐없이 한 번은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들이 방한할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숙소는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에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난리가 있습니다.
무슨 난리인가 하면 미국 대사관이 남산에 있는 하얏트 호텔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면 1998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 605개의 객실 중에서 450개를 예약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 하루 지내는 방 하나가 600만 원씩 하는 방들이 포함이 되었으니 그 경비도 엄청날 것 같아요. 이렇게 450개를 예약 해놓고 CIA와 백악관 경호원들로 이루어진 60명의 사전준비팀이 한 달 전에 내한을 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체 통신 무선장치를 설치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통신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인공위성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통신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폭탄탐지견을 데려와서 호텔을 수색하고,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호텔을 수색하는데, 마치 손바닥으로 그 큰 호텔을 다 쓸고 다니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탕에서 머리카락 같은 게 거슬리고 그러면 손바닥으로 쓸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부분을 쓸어내는 것은 쉽죠. 그런데 하얏트 호텔을 손바닥으로 쓸듯이 그 20층짜리 건물을 다 쓸고 다니면서 수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0명에 이르는 호텔직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를 청와대에 요청해서 티끌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람 같으면, 450개 객실에 일체 접근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호텔 측은 방 청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 일체, 심지어는 물까지도 안전을 위해서 미국에서 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통같은 별나다 싶을 정도의 경호를 위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들기에 힘들 정도의 호텔 정면과 측면의 평면도입니다.
완벽한 경호를 위하여 호텔의 구조물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경호원들이 이 20층 건물의 설계도의 개요라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경호가 가능하고, 이 경호를 위한 수뇌부는 완전히 설계도를 꿰뚫고 있어야 지시를 하고 경호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호텔의 설계도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1978년에 개관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아닙니까? 건축에 들어간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건축 전에 설계도는 완성이 되었을 테니까 4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설계도는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하얏트 호텔이 지금도 서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얏트 호텔에 가면 화려한 외관이 있고, 로비에 들어가서 보이는 인테리어들인 의자, 탁자, 안내 데스크, 화분이라든가 20층 전체의 객실마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담고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건 설계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창조에 관한 사실 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이야기를 대할 때에 주로 우리 마음이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내신 창조물들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에 중심점이 놓여있다고만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해했던 거예요. 이 눈에 보이고 있는 창조물들이 담겨져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가 오늘 2절이라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태초의 설계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설계도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설계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도 경호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하얏트 호텔의 구조물을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를 넘겨받아서, 사전에 60명의 경호원들이 설계도를 샅샅이 외웁니다. 파악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경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경호를 합니까?
우리 삶을 불행으로부터, 실패로부터, 파탄으로부터 경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산과 강과 바다 육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를 이해해야만 지켜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경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그 설계도가 나와 있고, 그 설계도를 이

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부터 경호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태초(太初)’라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큰 처음이라는 겁니다.
큰 처음이라는 것은 처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처음이고 모든 그 다음의 처음들의 속성을 결정해주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태양(太陽)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대로 하면 가장 큰 불이라는 뜻입니다.
태평양(太平洋)하면 무슨 뜻입니까? 바다 중에서 제일 크고 평평한 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작들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겁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시작하는 학년이 있고 끝나는 학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사업하는 중에도 회의를 하면 시작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시작을 한 사람의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나라도 시작했다가 끝날 때가 있고, 민족도 시작했다가 끝날 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시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시작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세상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지라는 것은 창조라는 계획을 갖자마자 생겨나는 것이 있어요.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되시는 그 분의 세계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시면서 생겨난 것이 하나님 이외의 영역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이외 영역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자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창조의 세계에서 인간이 유일하게 인격자니까 이 창조의 중심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영역이 생겨났는데, 그게 인간이 살아야 될 영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될 영역으로서 산과 바다와 강과 해와 달과 별과 우주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이 인간인 것이죠. 지구 안에도 만물이 있는데 그 중심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와 관계를 해야 될 존재는 인간 밖에는 없으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웅장하지만 그 폭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밖에는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

겠습니까? 아니죠. 인간만이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고 나서 시즌2의 오늘의 번제를 시작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자 하나님이 계신 세계 이외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해서 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내용을 창조이전의 상태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함께 지양되어야 될, 없어지고 끝나야 될 상황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오해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고 나니까 이게 오해였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해였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외의 영역인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살아야 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도의 내용이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라는 구조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역 이외에 인간이 사는 영역이 생겨났는데, 이 인간이 사는 영역을 어떻게 설계하셨느냐?
혼돈과 공허로 설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초의 설계도대로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혼돈과 공허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구조물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혼돈(混沌)이 내용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카오스(Chaos)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답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이외에 생겨난, 인간이 놓여서 삶을 영위해야 될 영역 자체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학교에 다닐 때에 시험을 보면 문제에 보기가 4개 나오지 않습니까?
보기가 4개 나왔는데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몰라요. 그런 문제가 25문제 중에 5개가 있습니다. 답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이 상태예요.
자식을 키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장가가야 되고 이 모든 일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답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모를 때 발생하는 일이 뭡니까?
걱정과 근심입니다. 이게 바로 혼돈입니다.
혼돈은 우리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구조자체가 혼돈과 공허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허(空虛)는 뭐냐?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답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밀고 나간 마지막 결과가 그 답이 틀렸다고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허라는 것은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게 채울 것이 이 세상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삼성이 소니를 제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소니를 제쳤습니다. 소니로서는 황당한 거예요.
누가 자기네를 넘볼 수 있는 전자회사가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해로서 답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답이 오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해집니다.
자, 삼성이 전 세계 1위의 전자 회사가 됐어요. 제가 작년에 삼성에서 결정한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는데 고가의 스마 폰에 집중적으로 전략화 한다는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건 아닌데…'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채 못 되었는데, 중국의 샤오미라는 회사에 1등자리를 내주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40%이상의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쫓기니까 다시 반도체에 주력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고가의 스마트폰에 주력한다는 답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채 못 가서 공허한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같이 오는 거예요. 또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스마트폰 사업을 이뤄갈지?
삼성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모여 있는 전략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예요.

하나님과 다른 영역인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역에서는 답이 없는 혼돈과,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밀고 나갔어도 결국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마음과 연관되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 1절부터 아예 창조의 이야기가 인간의 마음을 겨냥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구조 안에 하늘과 바다와 땅과 태양 이 모든 것들이 담겨지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과의 관계에서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이외의 영역은 바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바다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라는 구조와 아울러 바다라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흑암이 있다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마음이 빠지지 않으려면,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흑암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흑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석하다는 말을 할 때 밝을 명(明)자가 들어갑니다. 현명(賢明)하다도 그렇고, 철학 할 때의 철도 밝을 철(哲)자입니다.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고 하는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어두움이 있지 않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무엇이 좋다 나쁘다는 밝음을 갖게 되면 바로 바다에 빠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을 고가의 상품으로 주력하자고 해서 2년 만에 1등자리를 내주게 되고, 이 추세가 계속 가속화될 것 같다고 모두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팀에서는 삼성이 살아남으려면 반도체에 주력하자고 합니다.
(하하) 제가 볼 때에는 우스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삼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이 자기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진행하고 있는 무대가 되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실패를 해요. 실패하면 또 다시 자기계발서를 읽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 자체가 혼돈과 공허라는 구조와 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건 좋고 좋지 않고의 판단을 하는 밝음이 내 속에 존재하면 반드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앉으며 하는 게 뭡니까?

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혼돈을 극복하려고 해요.

혼돈을 쉽게 말하면 답을 모르는 상태이고 마음에 평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자꾸 움직여요. 답을 찾으려고 움직여요. 이게 바로 혼돈의 구조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밀고 나가다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허만 남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틀려서 또 다른 답을 구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생애를, 일을, 불행, 실패, 파탄으로부터 경호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심과 동시에 지양되어 버릴 것들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이 바다라는 구조물은 태초에 설계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설계도대로 구조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우리나라, 한 기업, 한 단체 모든 것이 바로 이 혼돈과 공허와 바다라고 하는 구조물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돈과 공허를 극복할까요? 흑암 가운데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흑암 가운데서 어떻게 아무런 분별과 판단이 없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판단하면 가라앉아버려요.

가라앉는다는 것이 뭐냐? 기쁨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지면서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우울해집니다. 걱정과 근심에 싸입니다.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빠질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내 마음 속에 내 삶에 대한 밝음인 명석함과 현명함과 분별이 있으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물 안에서 내 삶이 어떻게 혼돈에 빠지지 않고, 공허에 빠지지 않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답은 오직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루아크(Ruwach)라는 단어가 바람이면서 영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바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바다에 빠지는 삶을 극복할 수 없고,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들어 가는 삶을 극복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아예 창세기 초장 1절,

2절에서부터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에 만들어진 설계도예요.
태초는 시작들 중에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중에서도 무슨 일을 시작하고, 모든 시작이 어떻게 되어야 그 시작이 실패로 끝나지 않느냐? 설계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모르는 모든 시작은 혼돈과 공허로 끝나고, 바다에 빠지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바다에 빠짐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별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첫 절부터 십자가를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동여매지 않고는 혼돈과 공허와 바다로 되어 있는 이 삶의 구조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부터 경호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을 운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알에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현실이 되어야 할 많은 알들이 하나님 안에 품어져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처럼, 천지 안에서 계속해서 내 삶을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알을 부화시키시듯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 들여야 하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바다로 짜여 있는 구조물인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 하나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바다에 빠짐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이 평강과 샬롬 가운데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초장부터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태초에 설계되었지만 그 설계도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영위하는 삶이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구조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시작을 하든지 이 구조물의 성격을 이해함으로 우리의 삶을 불행과 파탄으로부터 굳건히 경호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